

保健教育의 새로운 役割

朴 亨 鐘

(仁濟大學校 保健大學院長)

保健教育의 새로운 役割

1989年 10月 9일부터 5日間 Geneva에 本部를 둔 WHO의 主管으로서 “開發途上國家에 있어서의 健康增進”을 위한 會議(Working Group on Health Promotion in Developing Countries)가 열린 바 있다. 여기에는 世界各國에서 健康增進과 保健教育에 關心을 가진 約 50余名의 專門家들이 참여한 가운데 健康增進을 위한 保健教育의 새로운 役割과 그 效率的인 方法에 관하여 論議하였다.

돌이켜보건데 國民保健醫療事業을 效果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保健教育이 不可缺의 要素임은 이 分野의 여러 碩學들에 의하여 이미 지적되었고 그 重要性이 強調되었음을 알고 있다. 近代 公衆保健을 体系化하는데 크게 寄与한 바 있는 Dr. E. A. Winslow는 “公衆保健이란 組織된 地域社會의 努力을 통하여 疾病을 豫防하고 生命을 延長하고 身體的·精神의 能率을 向上시키는 哲學이며 技術이다”라고 定義하면서 組織된 地域社會의 努力이란 表現으로서 保健教育의 重要性을 強調하였다.

한때 미네소타大學校 保健大學院長을 지내고 美國公衆保健協會長을 歷任한 Dr. Gaylord Anderson도 公衆保健이란 法(Legislation)과 保健奉仕(Service) 그리고 保健教育(Health Education)의 三要素로 構成되는데 그 中에서도 가장 重要한 것이 保健教育이며 教育의 뒷받침없이 是 아무리 훌륭한 法이나 奉仕事業도 그 實効를 거둘 수 없음을 示唆한 바 있다.

따라서 公衆保健이 大學에서 講義되고 實地로 國民保健向上을 위한 事業으로서 實踐되는 모든 過程에서 保健教育이 強調되어 왔다.

WHO는 1953年 “保健教育에 관한 第一次專門委員會”(WHO First Expert Committee on Health Education)에서 保健教育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自身의 行動과 努力으로서 健康해 질 수 있도록 돕는데 그 目的이 있다”고 하였으며 그 후 1969년에 모인 “保健教育에 있어서의 研究를 위한 會議”(WHO Scientific Group on Research in Health Education)에서 保健教育은 사람들로 하여금 a) 自身 및 그들이 사는 地域社會의 健康에 대하여 責任을 느끼며 b) 健康增進을 위한 地域社會生活에 寄與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고 하였다.

즉 1970年代까지만 해도 保健教育의 主關心은 國民各個人에게 疾病豫防과 健康한 生活을 위하여 필요한 知識을 가르키며 健康에 관심을 갖게 하며 疾病을 豫防하고 健康을 增進시키기 위한 個人의 役割과 責任을 強調하였다. 이러한 過程에서 1950年代부터 크게 發展한 바 있는 社會科學·行動科學에 힘입어서 保健과 關 련한 個人의 態度 및 行動變化를 가져오기 위한 保健教育이 方法論에 대한 많은 研究와 發展이 있었으며, 이와 때를 같이하여 個人의 知識과 行動에 多大한 影響을 미치는 成長期 青少年期의 重要性에 비추어 學校教育에서 保健教育이 強調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過程을 거치는 동안 全世界 保健醫療界에 劃期的인 變革을 가져 온 것이 1978年 9月 소련의 Alma-ata 市에서 열린 “一次 保健醫療를 위한 國際會議(International Conference on Primary Health Care)이다.

世界의 160余個 國家의 頂上들이 모인 Alma-ata 會議에서는 所謂 Alma-ata宣言을 滿場一致로 통과시킴으로서 오는 西紀 2000년까지 全世界 모든 人類에게 必要한 醫療를 제공하여 社會正義實踐의 一環으로서 各國은 그 實現에 모든 努力을 傾注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이러한 各國 政府의 強力한 意志의 表現에도 불구하고 그 成功은 國民들의 理解와 國民保健向上을 위한 國民들 스스로의 積極인 參與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데에 意見을 같이 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國民들의 積極인 參與를 誘導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質問은 保健教育界에 過去에 대한 自省과 더불어 未來를 향한 새로운 方向을 摸索하여야 할 큰 課題를 안겨주고 있다고 하겠다.

그동안 保健教育의 方法論 自体에 대하여 많은 批判과 더불어 自体的인 自省이 있었음이 사실이다. 과연 保健教育이 保健事業推進에 얼마나 寄與하였는가? 保健教育이 社會指導자들에게 保健의 重要性을 認識시키는데 어떤 役割을 隨行할 수 있었는가? 國家保健政策樹立에 保健社會專門家들이 얼마나 參與할 수 있었는가? 國民의 健康과 連結되는 各種 國民生活樣式의 變化를 催促하는데 保健教育이 얼마나 寄與할 수 있었는가? 등등의 質問을 통하여 그동안 國民保健改善을 위한 社會變化에 있어서 保健教育이 차지한 比重이 너무나도 微微하고 消極的이었다는 批判의 소리를 꾸준히 듣고 있다. 個個人이 健康에 대한 올바른 知識과 實踐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實現되기 위하여는 周圍사람들, 즉 내가 사는 家庭과 職場과 나아가서 全体 社會로부터의 理解와 努力과 同參이 重要하며 따라서 保健教育의 努力은 이러한 廣範圍한 參與를 促進하기 위한 活動으로까지 擴大해 나가야 할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觀點에서 1986年 11월에 Canada의 Ottawa市에서는 “健康增進을 위한 第1次國際會議(The 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ealth Promotion)”가 召集되었는데 여기에서는 世界人口의 健康을 推進시키기 위하여는 過去와 같이 어떤 特定疾病을 豫防하는 데 必要한 知識과 方法을 생각하는 消極的인 接近方式 대신 全体人口의 보다 넓은 健康을 享有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生活樣式全体에 바람직한 變化를 가져올 수 있는 보다 積極的인 社會運動으로서의 保健教育이 必要함을 주장하였다. 이를 위하여서는 ① 健全한 保健政策樹立에 寄與할 수 있어야 하며 ② 그러한 政策樹立과 그 實踐을 求現하는 社會環境造成이 要求되며 ③ 이를 뒷받침하는 地域社會組織活動이 요구되며 ④ 個人과 家族과 社會의 健康을 維持 向上시킬 수 있는 方法과 技術에 대한 哲學과 教育이 따라야 하며 ⑤ 나아가서 全体 保健醫療

制度의 새로운 方向을 定立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모든 過程을 主導하고 推進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保健運動의 必要性이 強調되기도 하였다.

Ottawa會議에 이어서 健康增進을 위한 第2次 國民會議(The Seco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ealth Promotion)는 1988年 4月5-9일에 오스트레일리아의 아데레이드市(Adelaide)에서 열렸는데 이 會議에서 다시 한번 Ottawa會議의 決定을 再確認하였으며, 모든 國家가 健康增進을 위한 汎世界的 運動에 同參할 것을 促求하였으며 그 中에서도 이 會議에서는 특히 健全한 保健政策樹立을 支援하기 위하여 어떠한 社會的 努力이 必要한가에 討議의 焦點을 두었다.

健康增進을 위한 第3次 國際會議은 1991年 6월에 스웨덴의 쉐즈볼(Sundsvall)에서 開催될 것으로 豫定하고 있는데 이 會議에서는 主로 健康增進運動을 支援하는 社會環境造成을 위한 具體的인 方案이 論議될 것으로 되어있다.

이러한 健康增進을 위한 世界的인 움직임에 힘입어 前述한바 1989年 10월의 WHO Working Group에서는 5日間의 討議結果 社會變化를 가져오기 위한 다음과 같은 具體的인 運動方向을 제시하였다. 즉,

1) 健康意識의 鼓吹(Advocacy for Health)

國民들에게 保健의 重要性을 인식시키고 保健에 대한 關心을 불러 일으키는 運動의 展開가 바람직하다. 이를 위하여는 一般 國民外에 政策樹立者, 高級公務員, 社會指導者들에 대한 理解와 協力を 구할 수 있는 方法이 모색되어야 한다.

2) 社會 協力體制의 構築(Strengthening Social Support) 健康增進의 成功的인 達成은 醫療人들만의 힘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國民들의 생각과 價值觀과 生活樣式 全般에 대한 變化가 要求되기 때문에 그 實現을 위하여는 社會 各階 各層의 期待와 協力없이 廣範圍한 社會變化를 期待할 수 없다. 따라서 社會에 영향력있는 모든 團體와 機關들과의 協力體制를 造成하므로써 그들의 積極的인 參與와 支援을 얻는 것이 重要할 것이다.

3) 國民活力化(Enpowering People)

社會變化의 主力은 역시 各 國民 個個人의 힘이 모여서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國民 各自가 健康에 대한 關心을 갖게 되고 健康에 대한 올바른 知識을 所有하게 되고 健康한 生活를 살 수 있는 方法을 體得하고 이들 實踐

할때에 社會全体的 健康도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國民들에 대한 계속적인 啓蒙과 教育이 家族과 學校와 社會의 各 團體와 機關을 통하여 強化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健康增進을 위한 最近 2年間의 國際的 努力은 保健教育에 關心을 가지는 우리들에게 示唆하는 바가 많다. 從來의 疾病中心의 또한 個人中心의 保健教

育의 接近方式으로부터 이제는 脫皮하여 좀더 積極的 이고 社會變化를 指向하는 보다 活氣있는 새로운 保健教育의 定立이 必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침체되어가는 保健教育의 中興을 위하여 保健教育分野에 從事하는 모든 사람들이 새 힘을 모아 總力を 傾注하여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 생각한다.